

## 페미니즘의 역사

### 1. 여성권과 사회변혁

#### - 여성 억압의 현실

오늘날 여성은 형식적 평등을 달성함. 그러나 여전히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제약함(3강 재생산의 위기). 또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은 사회활동에 부적합한 장애로 여겨짐. 이 때문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부차적 지위에 놓이게 되고,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심화시킴. 한편 여성의 성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2강 성매매), 극단적인 폭력으로 강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고 여성에게만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성의 이중규범도 공고함. 이처럼 여전히 여성억압의 현실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성적 자율성을 획득해야 함.

#### - 여성권: 성욕의 권리

: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 여성권이 필요함. 여성의 권리로서 성욕의 권리와 모성의 권리. 여성에게 성욕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남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질 자유를 달라는 것과 다른 것. 여성이 자신의 성을 생존의 방편으로 삼게 되는 현실, 그로 인해 여성이 남성 성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격적 존엄이 손상되는 현실을 바꾸야 한다는 주장. 여성에게 성욕의 권리란 성이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을 권리, 성적 수단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성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일이 중단되는 것은 남성들의 도덕성을 고취하여 해결될 일이 아님. 단지 성매매 같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비롯한 모든 남녀 관계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 남편과 부인 모두가 평생 정절을 잘 지키면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온전한 해법이 될 수는 없음.

: 여성 스스로 자신에게 성욕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회적 통념과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녀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 이러한 노력은 사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면서 남녀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 또한 여성이 남성의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함. 여성이 자신의 성을 생존의 방편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던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

#### - 모성의 권리

: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스스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모성이 여성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권리로 확립될 필요가 있음. 과거 여성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는 것이 의무였음. 즉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음. 오늘 날 아들을 못 낳았다고 소박맞는 시대가 아님. 그러나 여전히 모성을 권리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여기는 통념은 남아 있음.

: 단적으로 1970년대부터 추진된 가족계획과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들 수 있음. 가족계획은 ‘덜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여성의 출산을 줄일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피임의 보급과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국가가 나서서 독려함. 그러나 최근에는 출산률 하락으로 국가경제가 위협 당한다며 출산을 장려함. 암묵적으로 허용하던 임신중절수술을 단속하고, 낙태하는 여성의 성적 문란함과 무책임함을 질타하는 여론을 형성함. 모성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기능이나 의무로 여기는 통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임.

: 여성에게 모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 스스로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신중절 시술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모성을 의무로 여기는 담론을 변화시켜야 함.

#### - 여성권 쟁취와 사회변혁의 결합

: 여성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전반의 변화를 동반해야 함. 여성의 성이 거래되지 않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여성노동을 제약하는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가 필요함. 그러나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자연스럽다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아래, 가족 내에서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무급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함. 따라서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시하며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변혁과 결합되어야 가능. 다른 한편으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맞서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성욕의 권리와 모성이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수용되어야 가능.

#### - 페미니즘 역사 재구성

: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한 통상적인 접근

- 1) 1세대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전개된 투표권 투쟁을 중심으로 남녀평등 이념을 주창
- 2) 2세대 페미니즘(급진주의 페미니즘) : 1960년대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가운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고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억압, 특히 여성의 고유한 성욕의 억압이라는 문제를 제기

: 통상적 접근의 한계

페미니즘의 역사를 1, 2세대로 구분하는 접근은 페미니즘이 처음부터 사회변혁과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관념을 전제. 또한 이것은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성적 차이, 특히 여성의 고유한 성욕의 문제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인식.

: 페미니즘 역사 재구성

프랑스 혁명기까지 소급하여 페미니즘의 역사를 재구성. 통상적인 접근에서 간과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전통을 복원하면, 역사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변혁의 이념으로서 사회주의가 항상 평행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성적 차이라는 문제 역시 페미니즘 역사의 초기부터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줌.

## 2. 페미니즘의 기원: 1789 프랑스 혁명과 여성권

### - 1789 프랑스 혁명의 쟁점: “누가 시민인가?”

: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 = 시민이라는 보편적 시민권을 지칭했지만, 1791년 제정된 헌법은 이러한 ‘인권’을 소유권으로 제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분.

: 자유, 평등이라는 혁명의 이상과 그 현실적 제도화 사이의 괴리는 시민적 영역에서 배제된 인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 이에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민들의 저항이 이어졌고, 여성들 역시 ‘여성시민권’을 획득하려는 흐름을 형성하며 이 대열에 참여.

: 이 여성들은 자연권으로서 인간의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보편적 평등이념에 근거하여 여성 시민권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장소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함의를 내포. 여성을 수동적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여남의 장소를 지정하는 공·사 분할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는 것. 여성의 종속은 자연적인 차이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공정하다는 주장은 보편적 시민권 사상과 시민권의 현실적인 제약 사이의 괴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

### - 올랭프 드 구즈,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여성에게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포함하는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제출하고 시민성의 성별화된 성격을 규정하고자 함. 구즈는 ‘권리선언’이 모든 주권의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는 민족을 여성과 남성의 결합으로 재정의하면서 시민적인 정치공동체가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역설. 남성이 이성적 존재일 뿐 아니라 성적 존재라는 사실, 남성의 성적 착취로부터 여성이 보호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

: 따라서 혁명이 남성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여성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족 안에서의 전제로부터 여성이 해방되기 위한 새로운 요구들이 추가되어야 함을 지적.

: 이는 여성을 특수한 부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근대 정치 자체에 여성을 각인시키고, 시민의 구성 자체가 성별화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보편주의.

### [여성의 권리와 여성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1조. (인간)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하다. 사회적 구별은 공동의 이익만을 기초로 할 수 있다.

2조. 모든 정치적 연합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 없는 권리의 보존이다.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제에 대한 저항이 이런 권리다.

(...)

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을 침묵하라고 강요받아선 안 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12조. 여성의 권리와 여성시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모성을 보호하기 위한]공익시설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이런 보장은 그것을 위임받은 이들의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 3.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

#### 1>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

19세기 초 유럽은 빈곤, 도덕적 타락 등 사회적 병폐를 초래한 자본주의와 이것을 치유할 수 없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자들이 출현.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경쟁적 윤리를 근거로 비판. 상속 받은 재산, 은행가 및 자본가 수준으로 생산수단이 독점되어 경쟁이 격화되고 이기적인 도덕을 가져왔다는 것. 따라서 상속권을 폐지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도록 생산을 재조직해야 함을 주장. 동시에 생산뿐 아니라 재생산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삼음. 여성해방을 사회변혁 전략의 통합적 일부로 여겼던 것임.

#### - 사회변혁과 여성권

: 19세기 초 영국의 뒤를 이어 서유럽에서 전개된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시화.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금지는 곧 경제적 참여에 대한 금지로 확대. 그러나 19세기 초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라 살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노동자 가족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가족 생계에 필수적.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노동자들은 공장과 작업장에서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육아노동을 유급노동과 동반해야 했음. 낮은 임금과 제한적인 취업 기회가 여성에게 가져다 준 곤경은 성매매의 급증으로 드러남. 이러한 현실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여성 해방을 노동자 해방과 불가분의 관계로 사고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됨.

: 생시몽주의 여성들은 모든 여성의 예측의 근거에는 사회 조직화의 결함으로 인한 자원의 결여가 있다고 생각. 여성을 위한 권리들은 여성의 빈곤이라는 쟁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허해 보였음.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빈곤을 제거하고 모든 여성에게 교육, 최저한의 생활수준, 그리고 노동할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 따라서 이들은 여성의 노동할 권리와 스스로 부양할 권리를 주장. 이들은 여성 종속의 물질적/경제적 차원을 제기함으로써 여성 해방을 노동자 해방과 불가분의 것으로 만들.

: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노동자의 민주주의 결여에 저항하는 한편, 가내노동에 임금 제공, 공공의 탁아소·세탁실·식당 등 요구.

#### - 결혼과 가족 비판

: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에게 결혼체계, 즉 가부장적 결혼과 개별 가족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적인 장소를 차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민법에 따르는 시민적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결혼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다.

#### : 가족 비판

1) 사적 소유의 전달을 담당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2) 경쟁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원천이었다(가족은 사회적 연대를 위협했다).

3)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비효율적이었다(가사노동이 사회화되면 여성들은 생산적 노동을 통해 공동체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cf) 오언주의 공동체: 사회의 자원은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었던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양육의 사회화(유아기부터 사회적 교육 실시), 노동조합에서의 교육

: 남녀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성애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자유결합을 옹호.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전제들이 결여된 시기에는 자유로운 여성이 있을 수 없다. 경제적 독립을 통해 여성이 사랑 없는 결혼이나 성매매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

- 모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

: 여성의 자율적인 개인성을 확립하고자 하면서 생시몽주의 여성들은 모성을 핵심적인 것으로 사고.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처럼 구조적 폭력. 따라서 가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관습은 무구한 실천이 아니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편·아버지의 이름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 폭력, 그 효과는 모성의 사회적 가치, 독립적인 주체로서 여성의 동일성을 삭제하고 여성에게서 그녀의 아이들뿐 아니라 그녀의 개인성을 강탈하는 것.

: 더불어 모성은 여성의 자기구성적 자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 모든 노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생산, 즉 출산이었음. 출산은 단지 생물학적 반사작용이나 본능적 성욕의 부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들이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해방되는 것처럼, 여성들은 모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것에 맞는 보상이 주어질 때 해방될 것. 여성들이 다른 누군가의 욕망의 수단도, 다른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게 될 때, 여성은 자신의 노동의 조건과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

- 성욕에 대한 여성의 권리

: 여성의 성욕에 대한 권리는 쾌락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성적 관계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권리, 즉 독신의 권리를 의미. 이는 시기적 조건, 즉 이 시기 여성들, 특히 노동자계급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경험들, 예컨대 실업과 저임금, 미혼모의 급증에 따른 것. 더불어 불완전한 출산통제,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성병이 만연한 상황 등은 여성이 성욕을 향유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 따라서 성적 해방을 경제적 법적 지적 해방과 연결시킴. 여성에게 사랑의 자유가 프리섹스로 귀결되지 않기 위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의미를 가짐.

-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

: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여성해방사상은 이후 일부 여성노동자들이 사회변혁과 여성권의 결합을 사고하고 나아가 여성권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이들은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된 역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변혁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 또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종속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 및 가족이데올로기가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각. 이것은 사회변혁과 여성권이 각기 구별되지만 서로 결합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실현할 수 없는 권리들이라는 자각과 같은 것.

: 그러나 이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분리되고 노동자운동 자체의 변혁성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실천도 축소되고 잊혀짐.

2> 빅토리아 결혼/가족

: 18세기 말, 19세기 초 새로운 소유 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지는 생산의 새로운 조직화에 조응하여 과거의 귀족이나 농민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녀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정의하는 새로운 가족구조를 발전시킴

: 영국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형성되고 운동이 쇠퇴하면서 이 시기 안정화된 지배적인 가족 형태. 이는 부르주아들의 가족 형태였으며, 이후 숙련 장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 영국 빅토리아 시기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1837년부터 1901년까지를 가리키는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물질적·군사적 번영을 구가했으며, 또한 부르주아 계급의 권리를 확장하는 각종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었다.

cf. 빅토리아 결혼/가족의 특징 - 엄격한 성별분업, 성욕의 조직화 방식 변화, 가족의 의미 변화

### 3> '여성권'과 사회변혁운동의 분열의 계기

#### - 1848 프랑스 혁명

: 1789년 『권리선언』은 소유를 노동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인식하는 한편, 자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과 나란히 권리의 목록에 넣음으로써 소유를 양도 불가능한 자연적 권리로 인식. 즉 생존권 제기. 소유에 대한 이중적 의미. 후자의 관념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1848년 혁명에서 정점에 달함.

: 시민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재산의 소유로 대표되는 공유된 남성성이었음. 그러나 1848년 혁명을 안정화하고자 남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인정. 그 근거는 소유, 남성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재산의 전달 도구 역할을 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소유. 소유권은 재산 소유와 가족에 대한 권리로 번역됨.

: 제 2 공화국 헌법은 자신의 원리인 자유, 평등, 형제애를 위한 토대로서 노동, 소유와 더불어 가족 열거했음. 가족과 소유에 대한 권리를 문자 그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리. 이러한 권리들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다른 남성들을 평등한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 - 여성권과 노동자운동

: 19세기 초 영국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경쟁관계가 주된 쟁점이 됨. 여성은 남성의 임금을 낮추고 임금인상 파업을 막는 대체 인력으로 인식됨. 1830년대 노동권 투쟁은 '성적분업, 성별 임금격차, 남성 산업에서 여성의 고용,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등' 노동자로서 여성의 지위와 노동자운동에서 여성의 장소라는 쟁점을 개방.

: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공사분할 이데올로기 고수. 1866년 제 1 인터내셔널 창립 대회에서 노동시장과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 노동권 지지하는 남성 없었다. 1867년 대회에서 남성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이 가족에 머물 수 있도록 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노동자운동의 부르주아적 가족 모델 수용.

## 4. 1세대 페미니즘

### 1> 1세대 페미니즘

#### - 출현 배경

: 1세대 페미니즘은 혁명적 시기에 분출된 요구들을 제도 개혁을 통하여 순치하려는 자유주의적 개혁 과정에서 출현.

: 사상적 배경은 밀과 테일러. 기존 체계를 수용하는 부르주아적 한계로 인해 이전 시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제기한 여러 쟁점을 삭제

: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부르주아 개혁주의의 일부로 출발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를 변혁하기보다는 그 성장의 열매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는 운동. 페미니스트들은 기혼 여성의 재산권과 독신 여성의 전문직 진입이 여성의 독립성을 위한 전제라고 주장. 이를 위한 여성교육기관의 신설 추진. 이런 경제적 요구는 점차 정치적 요구로 발전. 당시 빅토리아적 가족은 여성의 이익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여성의 고유한 미덕과 도덕적 우월성을 전제한 빅토리아 가족 내부의 성별 분업에 기초하여 음주와 성적 방종 등의 사회적 악덕을 여성적 미덕으로 감화시킬 필요성을 주장. 정치적 권리를 도덕적 우월성과 결합.

- 여성 투표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주된 의제. 남녀 평등과 여성의 도덕적 우월성을 근거로 요구했음.

: 여성 시민권에 대한 의회주의적 해법(cf. 혁명기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와 비교). 유산자 여성에게 국한된 특권이며, 따라서 페미니즘 개혁주의의 관심은 여성노동자를 해방시키는 데 있지 않았음.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은 이러한 모순을 날카롭게 인식했지만 부르주아 제도 개혁의 맥락에서 거부된 요구라는 이유로 투표권은 사회주의 운동과 단일 쟁점으로 결합.

- 도덕개혁과 결혼개혁

: 도덕개혁이란 남성들의 성적인 방종을 제어하자는 것. ‘여성에게 투표권을 남성에게 정조를’. 정조는 여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지켜야 하는 것. 이유는 남자들이 성매매하고 성병 옮아서 부인에게 옮기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 성매매만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성욕을 절제해야 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제어하려면 피임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성교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 남자들이 성욕을 앞세워 부인이 임신을 원치 않는데 성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피임과 낙태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불가피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제기하기 어려웠음.

: 결혼개혁이라는 것은 낭만적이 사랑이 낳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남녀의 이상적인 결합을 강조하지만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갈등으로 이어진 것임. 여기에 대한 조치로 남녀가 어릴 때부터 함께 교육받으며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성별분리로 인한 갈등이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합리적 사랑을 대안으로 제시.

- 1세대 페미니즘의 한계

: 투표권으로 단일화된 1세대 페미니즘의 쟁점은 이 운동의 동력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계로 작용. 투표권은 여성들간의 계급적 차이를 포함하여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여타의 모든 투쟁을 주변화하고, 여성투표권 투쟁을 여성들만의 분리주의적 운동으로 가져감.

: 반면 사회주의 조직들과의 연계를 끊지 않은 여성들 일부는 노동자계급 여성들의 빈곤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추구하고, 선거를 통해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 이는 국가와 복지가 연관된 상황에서 사회주의 조직들이 의회주의 노선으로 선회한 것과 연관.

: 부르주아들은 여성투표권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항하여 정치 체계를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 따라서 사회주의와 불세비키에 대한 적색 위험이 강조되던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도입.

## 5. 콜론타이의 실천

- 가족의 변혁과 사회의 변혁을 결합시키려는 탁월한 사례

: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계급적 한계(투표권 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계승하여 사회변혁운동과 여성권의 재결합을 모색한 시도. 콜론타이는 여성 억압의 원인이 가족에 있다고 봄으로써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전통을 계승. 기존의 가족이 변혁되지 않는 한 여성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콜론타이는 가족의 변혁을 사회변혁의 강령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 가족을 변혁하려는 시도는 가사노동 및 양육의 사회화와 더불어 자유결합에 대한 추구로 구체화.

1> ‘여성문제’의 원인에 대한 투쟁: 가족의 변혁

- 『여성문제의 사회적 토대』

: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또는 부르주아 페미니즘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 투표권에 대한 부르주아 페미니즘 요구의 협소함을 공격하고, 사회사업을 통해 여성노동자에게 접근하는 페미니스트의 시도에 반대. 여성문제의 물질적 토대를 제기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지적함.

- 『공산주의와 가족』

: 콜론타이는 여성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족에 대한 투쟁을 선언. 그녀는 ‘가족이 파괴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면서 가족 구조의 변화를 사회주의의 강령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 개별 가족을 대체하는 보편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

여성들의 일은 공동체 전체에 점점 덜 유용한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개개의 가족은 죽어가고 있다. 여성들의 일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사노동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바닥을 청소하는 대신에 공산주의 사회는 아침에 방을 청소하는 일에 남자와 여자들을 배치할 수 있다. 부자의 아내들은 오래 전부터 이 짜증나고 피곤한 가사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다. 왜 여성노동자들은 그 부담을 계속 짊어져야 하는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이전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안락함과 밝음, 청결함과 아름다움에 둘러싸여야만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요리를 하느라 애를 쓰고, 저녁과 식사를 준비하느라 마지막 자유시간을 부엌에서 쓰는 대신에, 공산주의 사회는 공공식당과 공동부엌을 조직할 것이다. (...)

여성노동자는 더 이상 빨래통의 노예가 되거나 양말을 꿰매고 옷을 수선하느라 눈을 버릴 필요가 없게될 것이다; 그녀는 매주 중앙 세탁실에 이것들을 가져다주고, 나중에 세탁되고 다려진 옷을 모아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덜 중요한 다른 일이 될 것이다. 특별한 수선센터가 여성노동자들을 수선에 사용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녀에게 책을 읽거나 회합과 콘서트에 참석하는데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

우리는 이미 영아들을 위한 시설과 탁아소, 유치원, 아이들의 집단 시설,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병원과 요양원, 식당, 학교의 무료 급식과 무료로 제공된 교과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옷과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더 이상 여성에게 가사의 굴레는 없다. 더 이상 가족 안에서의 불평등은 없다. 더 이상 여성이 아무런 지원 없이 남아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녀의 일에 의존한다. 그녀가 지원을 찾는 곳은 남편이 아니라 노동에서의 그녀의 재능이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노동자의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이다. 결혼에서 가족생활을 불구로 만들었던 모든 물질적 타산의 요소는 없어질 것이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 될 것이다. (...)

- 1917년 혁명 이후 콜론타이 사상의 현실화



- : 1918년 소비에트 시기 동안 여성활동을 수행하는 당기구인 제노텔(중앙위원회 여성국) 설치. 단순한 모성 보호가 아니라 개별적인 가사 노동의 철폐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 이중적인 도덕 기준과 성매매에 대한 투쟁 선언
- : 10월 혁명 직후 포고된 이혼의 권리가 여성 해방의 역정을 도울 것이라 확신.

## 2> 자유결합과 '새로운 도덕'

### - 공산주의에 적합한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

- : 콜론타이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담당할 때, 남녀 간의 새로운 유대가 어떠한 기초 위에 놓여 저야 하는가를 질문.
- : 상호인정에 기초한 성적 관계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 모성과 아동 보호, 사생아라는 관념의 폐기, 이혼의 자유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 따라서 성적 관계의 변혁은 당연하게도 사회의 변혁에 수반되는 과정이어야 함. 콜론타이는 경제적 관계의 변혁과 마찬가지로 성적 관계의 변혁에도 '사랑의 학교'라는 이행기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사랑의 학교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독립성을 획득하고 더 이상 사랑을 삶의 본질로서 간주되지 않게 될 것이다.

### - 자유결합

- : 콜론타이의 자유결합은 그 당시 '성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의 자유결합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사회변혁의 전제 없이 성해방을 꿈꾸는 부르주아적 자유결합은 오로지 육체적 욕망에만 따르는 '날개없는 사랑'으로 타락할 위험(이혼한 여성이 가족생활의 부담에서 해방되지만, 자녀 양육의 부담은 홀로 지는 딜레마). 공산주의 공동체만이 가족을 폐지할 수 있는 원리로 이해된 것은 이러한 상황 때문. 노동자들 사이의 동지적 사랑은 이러한 위험성을 공동체 내에서 통제해야 했고, 이러한 새로운 도덕이 노동 공동체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발전시키는 원리가 되어야. 콜론타이가 사랑의 문제에 특히 주목한 것은 여성 억압의 원인이 단지 경제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도 걸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

## 7. 아메리카 핵가족과 2세대 페미니즘

### 1> 아메리카 핵가족

- : 빅토리아 가족형태는 부르주아들의 발명품이었음. 노동자계급은 19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가족의 사생활, '별개 영역' 등 부르주아 가족 이념을 수용. 그러나 이러한 이념이 노동자계급에게 이식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개들이 필요. 1차 성혁명, 가족임금 및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에게 핵가족 모델 이식.
- : 남성의 경제적 지위를 특권화 하는 가족임금 체계 하에서 아메리카적 핵가족의 동반자적 이상은 현실에서는 남녀 간에 매우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성관계에서 여성의 성욕을 남성의 성욕에 비해 수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물질적 토대가 됨.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핵가족 형태 하에서의 남녀 간의 성적 분업 구조가 여성에게 할당한 역할은 가사와 육아분담 뿐만 아니라, 성애의 제공으로 확대.

### 2> 2세대 페미니즘

#### - 2세대 페미니즘 등장 조건

- :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하에서 가족임금 체계가 위협받으면서 아메리카 핵가족의 물질적 토대가 침식.
- : 성애를 가족 내로 도입했던 아메리카 핵가족의 모순이 폭발. 2차 성혁명.

: 한편, 신좌파의 출현을 토대로 노동조건 개선에 국한되지 않는 쟁점 활성화. 신좌파 운동은 비폭력 노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해방에 대한 강조 등 특성 지님

#### - 동반자적 핵가족 형태의 위기

: 1960년대 동반자적 가족형태의 모순 심화. 교외의 가정으로 유폐된 여성들의 불만(베티 프리단, '이름 없는 문제') 및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가족임금' 협약의 경제적 기초 붕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이에 따른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인식.

: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교육의 증가, 여성의 전문직 기회의 확대 및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독신여성층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고, '신여성'은 성혁명과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에서 주요한 담당자가 되었음.

: 50년대 가정성의 신화에 대한 이반은 남성에게는 생계부양자 윤리에 저항하는 반가족적 대항문화로 표출되었고 여성에게는 결혼 및 재생산과 분리된 성욕으로 나타났음. '성과학'은 이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담론 제공. '2세대 페미니즘'은 정치적 차원에서 여성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위한 집단적 저항 조직.

#### - 2차 성혁명

: 키제이 보고서에서 시작(오르가즘). 성의 목적을 임신보다는 오르가즘의 추구로 보아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능케하고, 오르가즘의 추구가 목적인 한에서 남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발전시킴. 성관계는 출산은 물론 사랑 및 결혼과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옴. 2차 성혁명을 거치면서 혼전성교, 혼외성교, 동성애 등 이전 시대에 여성들에게 금기시되었던 대부분의 성적 관행이 개방됨. 여성의 성애화를 촉진.

#### - 2세대 페미니즘: 가족의 위기에 대한 '저항의 정치'

: 2세대 페미니즘의 반가족적 지향은 '가족 내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즉 남성의 능동성과 여성의 수동성이라는 비대칭적 성적 분업에 대한 반대, 성애에 기반한 동반자적 가족에 부착된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에 반대. 정치적 영역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성적억압을 정치화함으로써 성욕 문제 중심으로 제기. 강간,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 주도

: 이들은 여성의 성적 종속의 원인을 남성 성욕의 폭력성에서 찾음. 계급적대를 남녀관계에 유비하여 남녀관계를 '성간 적대'로 파악하여 남성일반을 적대시하였음. 억압적이지 않은 새로운 남녀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사고할 수 없었으며 결국 여성의 위험을 특권화하고 여성의 쾌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이는 여성의 성적 억압을 역사적 가족형태와 결부시키지 못하고 이를 초역사적인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

: 여성 억압적인 남녀관계를 지탱하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구조는 문제 삼지 않은 채 프리섹스를 실천하는 것이 개인의 해방 및 사회 변혁과 동일시될 수 없음. 지배적인 남녀관계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 성욕에 관한 쟁점

: 성혁명 속에서 출현했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혁명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주체가 되기를 기대. 성해방이 여성해방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 여성 성욕에 대한 억압은 여성억압의 중심적 문제의 하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성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맹아적 관념으로 발전시킴. 페미니즘과 성혁명이 결합된 절정기에 페미니스트 회합은 성욕, 성기와 육체, 자위에 관한 의식고양 모임들

제공.

: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혁명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쾌락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방어적 투쟁을 벌임.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운동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들은 성적 쾌락이 위험으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중 여성의 경제적 종속에 대한 투쟁보다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투쟁이나 성적 대상화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관심을 집중시킴.

: 성폭력 및 포르노그래피의 위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페미니즘적 실천은 이러한 성간 적대가 심화된 상황에서 등장. 성혁명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성적 쾌락보다는 성적 위험으로 강조점을 이동시킨 것. 포르노운동은 포르노라는 문화적 재현과 강간이라는 현실적 폭력이 즉각적으로 관련된다고 봄.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격과 성적 욕망의 혼합은 남성 성욕의 본래적 성격이나 심리적 요인의 산물만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체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반포르노운동에서 강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재현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취약함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

: 여성의 성욕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성이 쾌락인가 위험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넘어서야 함. 여성의 성적 권리에 수반되는 위험이 이성애에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라 본다면, 여성의 성욕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문제를 우회할 수 없고, 성욕에 대한 권리를 페미니즘 내로 다시 도입해야 함.

#### · 재생산의 권리(낙태권)

- 급진주의: 성욕의 권리를 위한 조건으로 낙태의 권리를 옹호
- 문화주의: 모성을 찬양하기보다 여성억압의 조건 또는 위험이라는 각도에서 접근. 성을 위험스러운 것, 폭력으로 간주.

=> 로우 대 웨이드 판결(낙태 합법화 판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승인의 맥락(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의 맥락이 아니라). 낙태는 개인의 선택권 문제가 됨. 두 개인(태아와 어머니)의 권리 충돌을 둘러싼 논쟁(페미니즘 vs 신보수주의).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낙태 찬성 캠페인을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 확대할 것을 요구(흑인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단산 금지를 포함).

- 사회주의: 낙태의 권리를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라는 관념 속에서 조명(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에 유비되는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통제)

## 8. 역사적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

-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의 여성운동의 의제는 보편적인 사회변혁운동과 단절.

: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의 평등'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참정권 운동을 벌임으로서 단일 이슈에 몰입되고, 여성의 노동권, 여성권은 인식하지 못한 채 여권 신장운동으로 분리됨.

: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고유한 위험인 성욕의 문제를 여성억압의 주요한 의제로 제기했으나, 피해입지 않을 권리만을 내세운 채 남녀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여성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문제로 문제의식을 축소.

-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된 역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는 노동권의 획득을 통해 실현 가능. 여성이 노동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종속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 및 가족 이데올로기가 변화되어야 함(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